

세상의 기준을 바꾼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여는 호세아-

호세아 1:1-4, 로마서 9:25-26

정윤돈 목사님

* **호1:1-4**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나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나라

* **롬9:25-26**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러지는 모든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그러한 문제와 질병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진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헌장,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 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고통하며 아파하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말씀과 깨달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레마(Rhema)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기준

1. 전적 타락의 의미와 판단의 중단 오늘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향해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적 타락이란, 우리가 단순히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뜻을 넘어,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힘이 조금도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3장의 '나중삼'으로 돌아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 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며 끊임없이 선악을 구분한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판단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다. 복음과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복음의 싸움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온전히 의롭고 바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2.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복음적 안목 곧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다가온다. 우리는 정치, 문화, 경제, 세계사를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지는 질문에 나는 흔히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과 당리당략, 지역주의를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같은 눈으로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여 세워야 한다. 이는 목회자나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정윤돈 목사가 조금이라도 '덜 부족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온

전한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완벽한 온전함을 기대하며 그 기준으로 산다면, 결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제자를 세울 수도 없다. 우리는 복음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온전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 속으로, 복음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판단하려 하는 본성으로 계속 돌아간다.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우리의 삶은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끊임없이 구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3. 세움지마(塞翁之馬)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세상만사는 세움지마와 같다. 무엇이 정말 좋고 나쁜 것인지 우리는 단편적인 눈으로 다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비극이었으나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군수산업이 발전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무기수출 강국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70여 년 전에는 원망스러운 일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유익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자원문제가 그렇다. 우리는 흔히 왜 우리나라 땅은 기름한 땅을 안 나는 척박한 땅이냐며 원망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산유국들이 그 기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기에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파는 정유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켰다. 최근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자 전 세계가 한국의 정유기술과 제품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AI가 발전하면서 반도체 메모리가 필수적이 되자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는 우리의 좁은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한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역주의나 정당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치를 잘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되, 우리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요셉과 같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서론

1.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이 극도로 음란하고 부패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우 가혹한 명령을 내리신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다. 이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곧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고멜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2.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와 귀신을 섬기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다. 당시 그들은 23세, 24세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양화진에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 등 400여 명이 잠들어 있다. 총 3,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으며,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선교사들이 강제로 쫓겨나면서 우리 교회들은 오히려 영적인 자립을 하게 되었다. 다른 피식민지 국가들이 선교사가 떠나자마자 교회가 무너진 것과 달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 세계선교에 앞장섰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3.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세 전부터 부르셨다. 우리의 급한 성격, 지역갈등, 심지어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기질조차도 하나님은 산업 발전과 복음전파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한다.

4.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아펜젤러 선교사는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직하였다.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 앞바다를 지나던 중 배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한국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외국인인 한국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다. 은평천사원의 설립 기반 역시 아펜젤러와 그의 선교 팀이 닦아 놓은 것이다. 최근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 70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조상의 선교현장을 탐방하고 돌아갔다. 또한 아펜젤러의 딸인 앨리스 아펜젤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서 한국 여성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그녀는 강의실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던 중 쓰러져 순직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누리는 교육의 기회와 인권 신장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밑바탕이 된 결과이다. 험버트 선교사는 한글 띄어쓰기를 정립하고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저술한 분이다. 『사민필지』는 '백성이 반드시

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으로 세계사와 지리 등을 소개하며 한국인들의 눈을 세계로 열어주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투쟁했으며,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란다.

5.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 우리는 본래 우상숭배와 죄악 속에 살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많다. 복음의 눈은 상대방의 아홉 가지 단점보다 한두 가지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학벌, 가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1. 호세아와 고멜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

1) 호세아와 고멜의 배경 '호세아'는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 반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아버지 이름인 '디블라임'은 '무화과의 달콤한 맛' 혹은 '무화과 떡 두 덩어리'를 의미한다. 이는 세상의 쾌락과 타락을 상징한다. 고멜은 이러한 영적 배경과 DNA를 가진 집안에서 자라나 음란한 길을 걷게 된 여인이었다. 호세아는 평생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음란한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도 똑같은 죄인이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다.

2) 영적 유산과 가계의 저주를 끊는 복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과 저주는 매우 실재적이다. 과거 중국에서 만난 한 학생은 도박과 알콜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고모와 똑같았다. 악한 영적 유산이 그대로 대물림된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습관과 영적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부모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나로부터 복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비판과 불평은 제자를 만들 수 없다. 상대방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복음으로 수용할 때 진정한 전도자가 된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악하고 추하며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가문이나 조상의 배경이 좋지 않아도, 실력이 부족하거나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면 우리는 더욱 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3) 고멜을 향한 완전한 사랑 고멜은 결혼 후에도 자녀를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 창녀로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다시 사 오라고 명령하신다. 고멜의 이름 뜻인 '완전함'처럼, 인간은 악의 길을 걷는데 완전했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녀를 다시 품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싸매어 주시고 낮게 하시는 분이다. 고멜과 같이 추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2.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

1) 영적 지식의 부재와 하나님의 연단(호4:6)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가르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말세의 중요한 시간표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을 복음화할 사명이 있다. 서울의 가장 큰 도로 중 하나인 '테헤란로'는 이란의 수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전쟁 이후 중동의 재건사업에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덜 나쁜'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질조차 선교를 위해 사용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크게 쓰실 것이다. 이 언약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2) 성도의 정체성과 도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은 곳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능력이 없고 외국어를 못해도 괜찮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 나는 요즘 챗GPT와 같은 번역기를 활용해 전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기보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이단이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BTS와 같은 문화적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놓으셨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자신

만의 'CVDIP'를 그려가며 세계를 정복하는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3)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호11:1-4)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하신다. 이는 마치 스케이트장에서 부모가 어린아이의 몸을 끈으로 묶어 멀리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게 붙들고 타는 것과 같다.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길 바란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어 자신의 고집과 판단대로 행하다가 위험한 곳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마귀가 들끓는 이 험악한 세상과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4) 반역을 고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호14:4-7, 호2:16) 반역은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반역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대신 우리의 반역을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성경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지 아닌 다른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겨왔으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 과거 비행기 납치사건 구출작전 중 그의 형이 전사했다. 이 원망과 복수심이 또 다른 죽음을 낳고 있다. 인간의 동기와 원한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총리의 마음속에는 형을 잃은 팔레스타인을 향한 뿌리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온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는 물에 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원한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는 세상에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인 '샬롬'의 시대를 가져오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평화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

5) 징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호6:1)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매를 드신다. 이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영적 문제가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DNA가 있어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6) 사방면에서 구속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호13:14, 14:4) 하나님은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고, 14장 4절에서는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 이슬람 아랍 민족 사이의 깊은 갈등과 원수된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란 백성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제와 강대국의 정사 권세를 영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 세상의 그 어떤 타협이나 지식인의 지혜로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7) 풍성한 열매와 축복의 약속(호14:8) 호세아 14장 8절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수많은 훈계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결론은 항상 축복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결론

이 언약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237나라, 5000종족에게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그 비참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으실 때도 있으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